

## 時代 및 宗教的 環境과 韓國의 造景 景觀形成 小考

沈載成, 裴貞寬, 徐炳基, 崔鐘明  
培材大學校 園藝造景學部

### Historical Contemplation on the Korean Landscape Characteristics as Affected by Religious Environment

Shim, Jai-Sung, Bae, Jeong-Kwan, Seo, Byung-Key, Choi, Jong-Myung  
*Faculty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Pai Chai University*

본 小考는 韓國의 時代와 宗教에 立脚한 景觀形成變化를 概觀하고 造形方式의 歷史的 變遷過程을 고찰하면서 新概念의 造景 中心思想 構築을 위한 代案을 摸索하였다. 美와 環境에 조화되는 景觀조성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韓國의 造景을 새로운 시각에서 再照明하였다. 또한 이를 종교적 차원으로 昇華시키기 위한 자리메김의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景觀이라는 概念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는 의미를 探索하고 景觀을 통해 인간이 감각될 수 있는 狀況的 認識을 推定하였다. 본 小考를 통해 韓國적 造景의 位置와 이를 근거로 民族의 思想 및 宗教와 聯關된 새로운 造景文化의 發展方向을 論議하였다.

Landscape civilization in Korea originated in Cochosun(Ancient Chosun) era, this again succeeding to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 Koguryo, Baekje and Silla. The distribution of this culture showed great progress with the association of two particular religions - Buddhism and Confucianism..

Landscape development in Korea has greatly changed during specific times of both cultural and political upheaval in various societies. Religion has had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landscape development. Traditionally Korean people have had a tendency to favor more natural landscape than man-made structures in landscape : This trend was a quite different concept from that of other oriental countries, not to mention of western countries.

In particular, Buddhism influenced natural landscape, far from artificial craftsmanship in landscape. Oriental garden is a typical 'tabloid edition' of natural landscape which consists lakes, islands, ponds, stone monuments, and fruit trees, quite often raising animal in parks and courtyard style house. This style of garden influenced in Chosun Dynasty landscape.

Landscaping was usually for royal gardens, cemetery parks or high level of officer's residence. However, landscaping in Chosun Dynasty which had established Confucianism as a state religion gave us a specific designation. It was neither ethnic imitation or the garden style of both China and Japan : People were used to enjoy nature-friendly landscape or sink into the ecstasy of natural scenery itself.

The trend that landscape or establishing garden had been aimed at royal family- or bureaucrat-centered formatives was to becom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techniques in Korea. An example represented in a beautiful garden with fabulous decoration which established in palaces. This was completely not fit for the nation's feeling.

**Key Words** : Landscape, Buddhism, Confucianism, nature-friendly scenery

## I. 景觀이 갖는 本質課題 - 들어가는 글

아름다운 자연을 共有하면서 自然美의 利用度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景觀을 적절하게 維持管理를 지향하는 方法導出이 필연적으로 擡頭된다. 더욱이 屋外 餘暇活動 需要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自然景觀地 및 제한된 景觀地에 있어서의 樹·灌木 및 草生植物을 위시하여 水·石과 같은 자연물들을 素材로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景觀의 質에 미치는 視覺 影響力이 막대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配置管理는 조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 있어서의 造景<sup>1)</sup>은 景觀에 대한 인간의 欲求를 반영하는 하나의

1) 造景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landscape>의 語源은 원래 舊約聖經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landscape'(히브리어로 "noff", 즉 "Yafe", "beautiful")은 솔로몬왕의 성전과 성곽 그리고 왕궁과 함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조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landscape의 美的 含蓄性은 영어권에서는 주로 "scenery", 즉 풍경으로 표현되고 있다. Whyte(1976)가 언급한 바와 같이 'Landscape'라는 말은 커다란 변화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원천적으로 視覺的 知覺과 美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문학이나 예술방면에서 恒用되어 왔고 지금에 와서는 조경계획이나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조경가들의 의해서 아무런 저항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수단이기엔 作景에 앞서 자연 그 자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여기에는 물론 東洋文明을 반영하는 관습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宇宙의 秩序와 자연과의 調和를 敦篤히 하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자연과의 共存에 필요로 하였던 規範에 의해 크게 支配되었던데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관을 造形하는 사람들은 調和의 靈感을 획득하기 위해 산과 물과 돌과 식물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거기로부터 자연의 진정한 要素를 抽出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마음을 도출하여 자연의 경지에 접근시키고 여기에 느낌을 照影하여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美를 만끽하는 형태야말로 가장 순수함, 그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하여 필요한 요소를 선택하고 선택된 각각의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주어진 기존환경을 作形하거나 새롭고 보다는은 경관을 造形하고자 하는 행위는 독특한 문화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조경은 전통의 秀麗함을 지닌 독특한 문화단면이라고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景觀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停止된 상태에서 경관이 그 주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Collingwood, 1958). 그런 의미에서 경관은 환경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景觀과 環境은 다르다(Meinig, 1979). 환경이 인간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바깥세계에 대한 인간의 占有性을 조종하는 것이라면 경관은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시각에 의해 제한되고 共有되는 감각일 것이며 마음으로 그려지는 殘影일 것이다(曹正松, 1985).

그러므로 인간은 그 안에 內在할 수가 없고 다만 인간의 눈앞에 놓여지며 그것도 인식할 때 비로소 實在가 형성되는 것이다(Dickie, 1971). 이는 곧 環境이라는 것이 우리를 創造物로서 存續시켜 준다고 한다면 경관은 우리에게 文化로서 實現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자연스러움이 인공적으로 操作되어 組織적이고 均衡적인 것보다 오히려 훌륭한 것이라는 기본관념의 틀 속에 한 국가의 경관에 대한 概念을 定着시켰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Eckbo, 1983).

이와 같은 우리들의 自然美에 대한 감정은 이미 日本이나 中國의 그것과도 한참 거리를 두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여 집안으로 끌어들이려는 '掠奪的 景觀'(즉 借景)뿐 만 아니라 꽃을 절단하여 私生活 속으로 도입한 뒤 이를 독자적으로 활용하려는 문화(李圭泰, 1992)조차 철저히 거부하였다.

동양조경에 있어서의 근본은 漢字使用이나 '세로쓰기'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데서 연유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불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가 사회문화형성에 큰 몫을 차지했다. 耕種의 특성, 太陰曆 사용, 고대중국에서 완성된 官僚制 등이 상호 연관되면서 작용했던 결과는 자연속으로 몰입하고자 했던 한국조경에 상당한 土着性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造景樣式에서 나타나는 區別的 樣相은 같은 동양문화권에서도 간격을 들어 내고 있다(韓國造景學會, 1999). 이는 문화가 전파되면서 지형적으로 격리되어있었고 자연과 거리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교류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유의 문화형성은 바로 造園形式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시대의 변천을 따라 개성이 분명한 樣相의 출현을 볼 수 있었다. 자연을 극복해야할 환경에 놓여 있는 동양권의 사상과 문화는 5000여년 전 황화유역을 발원으로 보고 있다. 廣闊한 평야지대에서 농사의 첫 삽을 뜬 그들에게 각종 천재지변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왔고 이들에 대한 극복의 수단으로 天界現象에 대한 畏敬하는 마음을 지니게끔 하였다.

즉 하늘은 토지를 지배하고 있고 그 위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마저 다스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天人合一思想'을 잉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易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역이야말로 天·地·人의 조화적 특성으로 완벽하게 묘사된 사상의 結晶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사상적 여건은 동양인들로 하여금 예술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였다. 그리하여 思考次元 이상의 美的 境地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情에 충만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간직하려는 것을 덕목으로 삼게 되었다(柳仁熙, 1984). 또한 그러한 사상적 배경은 지금까지 서양의 個人主義의이며 論理的이고 分析的이었던 思考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進取的이고 攻擊的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양의 문화나 사상은 서양의 그것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택에 정원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도 人工的이며 加工된 자연이 주축을 이루는 '人造園'형식이야말로 자연의 일부에 자신을 동화시키려는 사상과 정면으로 背馳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감상함에는 커다란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 게다가 호화로움을 즐기기에 일반대중들은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技巧가 잔뜩 담긴 造形形式은 아니더라도 자연에 대한 美的 追求는 여유공간에 몇 가지의 화초들 - 특히 사상과 정서적으로 의미를 담긴 식물들을 식재하고 동시에 그 副産物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였다.

先人들은 花卉를 단순히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 그 꽃이 지닌 格調와 節度を 갈구하였고 訓育의 價値를 추구했음을 볼 때 우리는 한국조경의 고유한 獨自性을 이내 발견하게 된다.

姜希顔(1417-1464)은 그의 저서 《養花小錄》<sup>2)</sup>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생이 한 세상에 나서 오직 명예와 이권에만 골몰한 나머지 늙도록 해매고 지치다가 쓸쓸히 죽어가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벼슬을 그만두고 俗塵에 입었던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저 한가로운 江湖에 나아가 逍遙하지는 못할지

2) 朝鮮朝 世祖때 編著된 園藝書로 原名은 菁川養花小錄이다. 老松, 萬年松, 烏斑竹, 菊花, 梅花 등 각종 花卉類와 怪石, 種盆內花樹法과 기타 雜法등 植栽管理要領을 수록하고 있다.

라도 公事를 마치고 물러나오면 시원한 바람과 맑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가 드높고  
 줄과 창포의 그림자가 너울거리며 네가래와 개구리밥 사이에 魚族들이 활발하게  
 뛰노는 것을 본다. 이때 앞가슴을 활짝 헤치고 휘파람도 불고 시도 읊으며 이리저  
 리 거니노라면 몸은 비록 名利의 굴레에 얽매었다 할지라도 정신만은 세속 밖에 優  
 遊하여 나의 情緒와 懷抱를 마음껏 펼 수 있는 것이다」<sup>3)</sup>.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곧 인간으로 하여금 世俗的 貪慾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크  
 나큰 修身의 道具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자연스러운 美는 技術이 가미된 創造性的  
 美와 엄연히 구별됨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기술이 주된 특성이 되고 있는 것은 수단과 목적  
 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美는 철저하게 배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求景’을 할망정 경치를 만들어 즐기는 풍습은 기피하였고, 때문에 일부러 ‘造景’을 한다는 것  
 은 그리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생활의 중심으로 도입한 데에는 종교, 문화 및 사상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불교와, 그리고 다시 조선조에 들어와 儒敎의 採用은 곧 造  
 景樣式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종교에서 파생한 사상 및 자연 환경적  
 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의 독특한 造景文化를 형성한 것이다.

## II. 景觀概念의 時代的 變遷

인간이 지금의 형태로 進化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착수했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宮脇昭(1971)는 지구상에 출현했던 原始人들이 자연환경  
 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衣食住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생활을 위한 자연과  
 의 싸움을 거듭하면서 서서히 자연 속으로 同化되었을 것이라고 推定한 바 있다.

그들에게 가장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했던 것은 물과 먹을 양식을 쉽게 求得하는 일이었으  
 며 또 耕作에 유리한 토지가 있어야만 했다. 이와 함께 각종 猛獸로부터 피해 안전한 보금자  
 리를 찾는 것은 그들에게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게 하였다. 이는 해안, 하천 또  
 는 이들과 가까운 平坦地 등은 그들이 가장 選好할 수 있는 지역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생  
 계만을 위한 처절한 生存鬭爭은 적어도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고 나서부터 새로운  
 욕구를 갈망하는 형태로 진전하였다.

3) 『人生一世 汨沒聲利 肅然疲役 至於老死而不已 果何所爲哉 縱不能掛冠小魚潑潑於蘋 藻之際 開  
 襟散步 吟哦徒倚 身雖拘繫名韉 亦足以神遊物表 暢叙情懷矣』

인간은 변화하는 動物의 일종이다. 철학적인 思考를 지니고 있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절대성을 띤 특성은 환경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한다(金忠烈, 1973). 人間生活樣式에 맞게끔 주변의 구조를 변형해 나가고자하는 欲求是 바로 아름다움을 追究하게 된 첫 단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경이라는 다른 차원의 美를 창조하게 된 근원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철학적 審美眼이나 思考方式은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한층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종교적 의식이 加味되면서 有·無形物을 통한 思考의 表出行爲를 적극 發散하였을 것이다. 黃滄根(1970)은 시대정신의 표현수단으로 古代美術에서 그 緣由를 찾아내고 이를 배경으로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조망하고 있다. Carpenter 等(1975)은 이러한 미적 표현의 한 수단으로 식물을 이용한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게 되었음을 단언하고 있다.

先人들은 修景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식물이 인간생활에서 생태 기능상 지극히 필요한 존재라는 과학적 근거를 미처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自然主義에 흠뻑 젖어있던 옛 사람들은 적어도 식물이 지구생활권의 통합된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循環系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식물들이 인간에게 온정을 베풀고 평화스러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보았기에 이를 종교와 신앙에 근접시킬 수 있었다(近藤公夫 外, 1972). 그리고 직접 생활에 이 사상을 있는 그대로 삽입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住居環境이었다. 靑銅器時代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자연관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청동기시대 住居環境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基本條件은 우선 背山臨水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거지역은 기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북서풍을 막아주는 나지막한 야산을 뒤에 두고 앞에는 넓은 들이 있는 丘陵地帶를 택했다. 주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평야지가 존재해야만 했고 (食)水源의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靈魂不滅思想의 지배는 인간이 살고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덤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死後의 생활로까지 이어졌다.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사상의 당위성은 이미 조용하게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造園의 歷史는 古朝鮮時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大同史綱》<sup>4)</sup> 第1卷에 檀氏朝鮮紀를 보면 魯乙王이 즉위하면서 囿를 만들어 짐승을 飼育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3900년 전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庭園으로 볼 수 있다. 尹國炳(1978)에 의하면 BC 590年(의양왕 원년)에 淸流閣을 後園에 세우고 큰 잔치 베풀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미 고조선시대에 누각이 있어 後苑樣式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BC 180年(제세왕 10년)에는 宮苑의 복숭아꽃과 배꽃이 만발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庭園樹로서는 주로 桃와 梨를 식

4) 우리나라 開國부터 隆熙4年(1910)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로 1929년 金洸이 편찬하였다. 乾·坤 2책으로 엮여져 있는데 乾에는 고려 忠烈王 以前의 史實, 坤에는 忠烈王 1年(1275)부터 1910년까지 史實을 각각 6권에 담았다.

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東史綱目》<sup>5)</sup>을 보면 백제 진사왕 7년(AD 390)에 「백제가 宮室을 중수할 때 땅을 파고 산을 만들어 奇奇妙妙한 새를 기르고 각양각색의 화초를 재배했다」<sup>6)</sup>고 기술하고 있고 《三國史記》百濟本紀 武王 35年(AD 634)조에 나타난 기록에서도 「宮城 남쪽에 연못을 파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이끌어 들였으며 또한 연못 언덕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고 연못 가운데는 섬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造形은 「三神山의 하나인 方丈의 仙山을 본떠서 築造한 것」<sup>7)</sup>이었다.

뿐만 아니라 武王絰<sup>8)</sup>은 泗比河의 北浦에다가도 이와 유사한 遊園地를 만들어놓고 왕은 좌우에 신하를 거느린 채 연회를 베풀고 遊戲를 즐겼다<sup>9)</sup>. 축조된 유원지를 살펴보면 양쪽언덕은 기암괴석으로 造形을 하였고 그사이에는 각종 草花類를 심었는데 그 풍경이 마치 그림처럼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다. 거나하게 취한 왕은 흥이 극에 달하여 비파를 타면서 스스로 노래를 부르니 옆에 있던 신하들은 그 비파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였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이곳을 바로 大王浦라고 하였다.

또한 新羅 文武王 14년에 왕은 궁 안에다가 역시 穿池케 하고 積石도 하게 하여 造山하였는데 산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巫山으로서 열두 봉우리를 형성하였고 여기에 각종 꽃을 심고 진귀한 새를 사육한 것<sup>10)</sup>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의 왕궁을 중심으로 造園이 크게 보편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三國時代에 王宮을 중심으로 造園行爲가 크게 盛한 것은 高麗時代에 들어와서도 여전하였으며 맥락을 함께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의는 자못 크다. 《高麗史》睿宗 8年(1113)條를 보면 이 당시에 화원들이 많이 조성된 것 같다.

즉 2월에 두 개의 花園을 궁궐 남쪽과 서쪽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환관들은 사치스럽게 臺樹를 짓고 墻垣을 높이 쌓은 후 民家에서 심어놓았던 花草를 거두어 花園 내에다가 옮겨다 심었다. 官吏들은 이것도 모자라 宋나라 商人에게까지 부탁하여 화초를 구입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였다. 이로 인해 內帑庫의 金幣가 消盡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으며<sup>11)</sup> 그 폐해는

5) 朝鮮 英祖때 安鼎福(1712-1792)이 지은 歷史書로 그는 朱子의 通鑑綱目的 체계에 따라 箕子 朝鮮~高麗時代까지의 역사를 編年體로 서술하였다. 英祖 32년부터 編纂을 시작하여 22년만인 正祖 2년(1778)에 완성하였다. 寫本으로 전해오다가 1915년에 朝鮮古書刊行會에서 活字本으로 간행하였다.

6) 『百濟重修宮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

7)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注之, 四崖植以楊柳, 池中築島嶼, 擬方丈仙山』

8) 《三國史記》百濟本紀 武王 37年(AD 636)條

9) 『王在位日久耽於逸樂 與君臣 常遊宴於 泗比河北浦 兩岸奇巖怪石錯立 間以奇花異草如畫圖 王飲酒極歡鼓瑟自歌 從者履舞 時稱其地 爲大王浦』

10) 『王於宮內 穿池積石爲山 象巫山十二峰 種花卉養珍禽 其西即臨海殿 池今稱鴈鴨池在慶州天柱寺北』

11) 『二月 置二花園 置花園二于宮南西 時宦寺競以奢侈媚王 起臺樹峻墻垣 括民家花草 移栽其中

막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민가 50여 채를 허물어 大平亭을 짓고 太子에게 命하여 額을 쓰게 하였다. 亭子결에는 유명한 꽃과 기인한 나무를 심고 진기한 물건들을 그 좌우에 늘어놓아 景觀美를 조영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자 남쪽에는 못을 파고 觀瀾亭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북쪽에 養怡亭을 꾸미고 靑기와를 얹었으며 남쪽에는 養和亭을 지어 나무마디로 덮었다. 또 옥들을 갈아서 歡喜臺와 美成臺를 축조하고 奇石을 모아 神仙山을 만들고, 먼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瀑布를 만들었으니 作景을 함에 있어 奢侈와 華麗함이 극에 달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조는 필경 群小輩들이 날뛰게 하는 요인을 불러왔으며 관리들은 바로 이들과 연합하여 민간들이 가지고 있던 진귀한 물건을 수탈하였다. 그런가하면 왕의 密旨를 憑藉하여 遠近을 가리지 않고 다투어 빼앗아 말에 실어오는 행렬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본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던 같다<sup>12)</sup>.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도 조원행위는 여전히 왕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왕은 이곳에서 쾌락을 즐기고 官吏들은 관리들대로 왕의 쾌락을 빙자하여 출세수단으로 逆用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崇儒政策은 여러 가지로 변형된 造景樣式을 露呈하고 있다. 특히 寺刹을 중심으로 한 건축보다는 궁궐 및 유림들에 의해 이룩된 유적에서 한국적 조경의 맥이 이어졌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이는 바로 한국조경문화가 궁정이나 權貴들이 생활주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중의 생활 속에 널리 보급되었다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되어 거처하던 儒林들이 많았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등지고 풍치가 수려한 자연 속에 은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상과 철학을 학문으로 잇게 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학의 꽃을 피운 別墅 및 樓·亭文化의 한 축을 형성한 것도 바로 이들의 공로로 돌려야만 할 것이다. 문화를 통해 축조되었던 유적들은 당시 조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유림들이 남긴 이러한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朝鮮時代의 조경이야말로 自然主義이며 神仙思想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이다(鄭腫旰, 1974). 당시 이 자연을 玩賞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素材가 動員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竹, 松, 槐, 丹, 楓, 梅, 杏桐, 梧, 柳, 桃, 紫薇, 梔, 四季花, 躑, 側柏과 같은 樹·花木類와 菖蒲, 蓴芽, 菊花 芙蓉, 芭蕉와 같은 草本으로 구성되어 있다.

樓나 亭子를 세울 때에는 대체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臺를 造成하고 여기에 이들을 세웠으

猶以爲不足 又購於宋商費內帑金幣不貲」

- 12) 「又毀民家五十餘區 作大平亭 命太子書額 旁植名花異果 奇麗珍玩之物 布列左右 亭南鑿池 作觀瀾亭 其北構養怡亭 蓋以靑瓷 南構養和亭 蓋以椶 築歡喜美成二臺 聚洗石作遷山 引遠水爲飛泉 窮極侈麗 群小逢迎 民間珍異之物 輒稱密旨 無問遠近 爭取馱載 絡繹於道 民甚苦之」



며 그 옆으로는 연못을 파 경치를 조화롭게 조성하였다. 또한 주변에는 한 그루의 꽃, 한 개의 돌, 기이한 새, 진귀한 짐승을 구하여 갖다놓기도 하였다. 儒林들이 이들 자연의 構成要素들과 함께 동화되고 遊樂空間을 최대한 만끽하면서 당시의 조정으로부터의 배척에 따른 권력의 無常함과 적적함을 후진양성에 힘썼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韓國思想大全集, 1972).

또 하나 조원상의 구조물을 축조하면서 造園者들은 자연상태에 순응하되 風水地理思想을 철저히 따라 건축물을 선택하는 독특한 관습을 지녔다. 풍수지리사상 또한 자연 자체는 완전무결한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임을 신봉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오직 자연과의 균형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동양적 自然觀을 構築하였다.

다만 전통양식에서 탈피한 특징 있는 造景文化를 한껏 개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만 조선 조 후기에 접어들면서 극심했던 내외외환은 더 이상 이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다가 간신히 남아있는 조원의 흔적마저도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命脈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III. 伽藍을 통한 風景의 造影의 樣相

풍경의 조영에 대한 가치관은 寺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질 않고 있다. 더욱이 禪과 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衆生의 救濟가 사찰의 존재 의미인데 눈이 絢爛할 정도로 아름답고 빛깔도 유별하며 모양이 妖艷한 造形物들을 삽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本性을 어지럽게 하고 心性을 오도하는 玩物이며 또 이 완물은 喪禪할 수 있는 여지가 多分하기에 이를 적극 기피해 온 감을 불식하기 힘들다.

新羅時代의 薛聰이 神文王에게 『牧丹은 花王이요, 薔薇는 妖艷한 美姬이며 할미꽃은 布衣寒士이니 留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進言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문을 닦고 심신을 도야한다거나 수도를 하는 사찰에서 꽃들이 풍만하게 만개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드리기란 실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사찰에 있어 植物栽植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선암사의 栽植景觀에 관해서 강승문(1984), 조남훈(1996) 및 河在浩 등(1997)의 연구가 있으며, 李成圭(1996)는 사찰에 식재된 수목과 그 특성을 조사하여 건축물과의 조화됨을 살펴보고 공간특성에 맞는 재식양식과 樹種을 분석한 바 있다.

사찰이 건립되고 佛敎思想이 토착화되며 그리고 일반 대중과 精神的 呼吸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불교는 우리나라 傳統文化 계승의 한 몫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高麗時代에 이르

기까지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배하였으며 朝鮮時代에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 널리 崇尚되어 오면서 오늘날까지 국가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山地에 위치하여 산림이 사찰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수함과 神秘感 增進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축조되어 있다. 더욱이 자연환경 그 자체가 바로 탁월한 造景要素가 되는데다가 사찰 자체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進入空間과 昇華空間으로 구분되면서 景觀價値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조경에 대한 역사적 관념을 가람을 통해 살펴보면 斷片的이나 많은 곳에서 그 面貌를 파악할 수 있다. 사찰은 佛敎傳來 初期에는 주로 도심지역의 평지에 세워졌다. 그러다가 統一新羅 中期 이후부터 禪宗이 성행하게 됨에 따라 불교의 來觀省察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파생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시 民間信仰이었던 靈地信仰과 결합하여 금강산을 위시한 많은 靈山 및 名山에 입지를 옮겨 築造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金南喆 및 洪光杓, 1993).

사찰의 위치에 따라 형식도 크게 다름을 볼 수 있다. 즉, 都心部 平地型 寺刹이 주로 인공 경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定型的인 형식을 취하는 반면, 山地型 寺刹은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적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非定型的이고 천연 그대로의 형식을 浮刻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山地寺刹의 경관구성은 建築形式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조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①자연지형의 변경을 통한 地形景觀의 造成, ②水の 導入을 통한 水景觀의 造成, 그리고 ③樹木을 통하여 얻어지는 樹景觀의 조성 등, 세 가지 유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金南喆 및 洪光杓 1993).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형식은 山地中庭型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형식은 다시 점차 변화·발전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와 立地性이나 空間構成 그리고 경관요소를 도입하는데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固有함을 지닌 독특한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河在浩 등, 1997).

그러므로 한국전통사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山地中庭型 寺刹에서 볼 수 있는 고유한 측면을 原型으로 하여 그로부터의 다양한 형식적 틀이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山地中庭型 사찰에 照影된 人工景觀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河在浩 등, 1997).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한국을 위시한 동양 각 국들은 그들의 造景文化를 繼承 發展시키는데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특히 전반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및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음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河在浩 등, 1997). 이러한 현상은 사찰뿐만 아니고 주요 사적지에서도 한결같이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다(申宇均, 1986 : 申宇均 및 金光東, 1992)

李成圭(1996)는 사찰의 전통조경양식을 살펴보고 그 특성과악을 통해 傳統樣式에 영향을 미친 종교, 문화 및 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찰의 전통조경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장령(1994)은 한국 고유의 사찰경관은 결국 한국적 풍토에 조화된 건축문화 그 자체라고 언급하면서 일찍부터 자연에 대한 敬畏心은 자연과의 융화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찰경관 역시 자연조건에 가능한 조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일림(1995)은 전통사찰 保全法에 기록된 사찰 중에 庵子를 제외한 637개 사찰을 1차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시 文獻調查, 現地調查, 設問調查를 통하여 136개 사찰에 대해 寺刹文化遺蹟의 분포와 立地類型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찰문화경관에 대한 분석에 이용된 사찰은 136개 사찰 중에서도 현황과악이 정확하여 분석이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70개 사찰만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또한 韓國佛敎의 문화경관을 사찰 내 造形物의 분포현황을 기본으로 분류하고 불교적 원리와 사신도와와의 관계에서 그 기준과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웅전, 요사채 및 門樓의 네 지표가 'ㅁ'자형을 이룰 때 中寺刹型이라고 하고 이보다 '—'자형, 'ㄷ'자형, 'ㄴ'자형 등이 형태를 갖출 때 小寺刹型으로 구분하였다.

進士五十八(1987)은 경관을 堅固한 부분과 柔軟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建蔽面과 石被面, 敷砂面, 裸地面의 土面, 流水面, 池泉面의 水面, 地被, 樹木面으로 나누어 분석기준을 설정한 후 30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 각각에 대한 구성비율을 측정한 결과 계측치는 각각 36.5%, 14.5%, 50.6%라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경내 수목에 대한 關心度는 果實의 利用 → 觀賞 → 綠陰 樹 이용 → 건물과의 조화 및 景觀效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申永澈, 1980) 사찰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을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과의 조화 및 경관효과를 위한 상록수와 관상을 위한 花木類가 그 주류를 이루는 전통사찰도 발견되고 있다(河在浩 등, 1997).

《高麗史》를 보면 觀瀾寺의 북측이 裸地狀態가 되어있으므로 근처의 民草들로 하여금 松, 栢, 杉, 檜 등의 수목과 奇花異草를 심게 하였으며 단을 쌓아 御室을 지어 金碧으로 장식하였다고 하여 이미 당시의 사찰에 造景概念을 도입, 樹木과 草花類를 식재하여 왕이 와서 휴식을 취하며 놀고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에는 화엄사의 池邊에 창포가 우거져 있고, 階前에는 黃牧丹이 활짝 피어 마당과 담을 누렇게 물들이고 있으며 작약도 붉게 피어 중국 月나라의 미인 西施를 취하게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忠惠王 4년에는 大護軍 朴良衍에게 명하여 崇敎寺에 화목을 심게 한 기록이 있고, 嬖臣인 宋明理는 이 승교사의 運池가장자리에 누각을 세워 遊宴에 쓰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李仁老(1152-1220)의 《破閒集》과 《高麗圖經》에 따르면 사찰에서는 원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池가 조영되었으며 이곳에 연을 심어 그 꽃을 감상하였다는 기록과 《三國遺事》의 탐상에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관련시켜 사찰 내의 池안에 蓮

이 심겨졌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찰의 전통식물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찰에는 그 사찰의 역사와 함께 하는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기도 하다. 사찰의 象徵性으로서 연관된 식생들은 수목학적으로 특정한 것은 없지만(강신갑, 1984), 佛陀가 前世에서 43회에 걸쳐 수신으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을 만큼 수목과의 관련은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다(黃滙江, 1975).

사찰에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수목으로 菩提樹가 있다. 菩提樹는 부처의 成道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釋迦牟尼公이 修道, 正覺, 成道, 入聖할 때까지 관련된 모든 樹種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阿說他樹, 尼拘律樹, 優曇針羅, 尸利沙樹, 娑羅樹, 分陀利樹, 波陀羅樹로도 불리워지는 聖樹이긴 하지만(權宙澤, 1973), 聖樹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나무가 神靈感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열대지방에서 좋은 그늘을 주고 비바람에 대해 보호역할을 하며 그리고 樹葉의 美觀으로 入山修道者들이 그 나무 밑을 端坐修道處로 정한데서 연유된 것 같다(權宙澤, 1973).

그러나 보리수는 특별한 神聖感이나 신비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수목 특성상 분명 특별한 교목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喬木으로 거대하게 생육하는 나무로서 枝勢가 넓게 퍼지고 叢密하여, 열대지방에서 열기를 피하는데 안성맞춤인 그늘을 제공해 주고, 風雨에 대해 방패막이가 되는 교목이다. 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그 나무의 粹美가 수도자로 하여금 그 밑에서 單坐하여 修道處로 정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면 이 수목은 禪樹로 연유될 수 있다. 그 수도자가 성공하면 그 처소는 바로 聖地가 되며, 바로 이곳의 성수는 곧 보리수라 칭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李成圭 1996). 菩提樹를 다른 말로 覺樹, 道樹 또는 思惟樹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수목은 곧 보리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연꽃 역시 불교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화훼이다. 뿐만 아니라 清潔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신비적인 생산과 산출의 상징으로서 친근감을 갖게 하는 화훼라고 할 수 있다(홍윤식, 1990). 사실 연꽃은 여성의 신비적인 생산의 에너지와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여성요소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沈清傳》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供養米 삼백석을 施主한 덕분에 아버지를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하고 자신은 희생하여 잠시 몸을 숨긴 곳으로서 연꽃이 등장한다. 특히 阿彌陀佛이 연꽃 臺座 위에 앉아 구품인의 手印을 갖고 說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곳에 아미타불이 현존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찰주변에 많은 꽃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철마다 꽃송이 휘날리게 한 까닭은 그 곳에는 언제나 하늘에서 세 번의 꽃비가 뿌리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일 것이다(正覺, 1994).

연꽃의 상징적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중심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일경에 나타나 있다. 홍윤식(1990)은 《蔓荼羅》에서 연꽃이야말로 청결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신비적인 생산 산출의 상징으로서 친근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는데 極樂世界觀이라는 의미에서 연못 한 가운데에다 연꽃을 심는 것도 다름 아닌 이 같은 불교의 敎理的 표현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각 寺刹은 창건과 동시에 연유된 수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남 승주의 松廣寺에는 사찰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쌍 향수가 식재되어 있다. 이 향수의 유래를 보면 보조국사가 금나라 초종(1190-1208) 왕비의 不治病을 치료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그 왕자가 기당을 제자로 데리고 돌아오면서 두 분이 짙고 온 지팡이를 천자암 뒤뜰에 꽂아 둔 것이 오늘까지 살아온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華嚴寺에는 重建할 때 심은 울벚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 38호로 지정되어있으며,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는 나라의 吉·凶事가 있으면 미리 운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이 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중국의 송나라 증단백은 花十二友 중 에서 梔子是 禪友라 했으며, 明나라 문진향은 《長物志》의 '花木'편에서 梔子야말로 佛堂에 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식생에 관한 생물적 환경에는 식물적 요인과 생태적 요인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식물적 요인은 식물의 種 분포에 관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생태적 요인은 기후 환경과 토양환경에 의한 총체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환경요인으로서 식생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상범과 하재호(1998)는 佛國寺의 植物相은 한국전통사찰의 植栽類型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境內 植生の 導入 面에서도 郷土 및 機能的 樹種의 선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事例로 海印寺에는 郷土性이 짙은 느티나무와 전나무로 圍繞된 공간을 거슬러 올라 주요공간에 이르고 있고, 법주사에도 천왕문 진입전에 주공간을 이르기 위해 절정에 이르는 극적인 효과를 이루도록 전나무로 誘引感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李成圭, 1996). 또한 송광사와 선운사에는 꽃이 100일 동안 지속되는 영속적이 부귀영화의 상징인 배롱나무가 대웅전의 축을 중심으로 식재되어 있다. 법주사에는 상징과 실용적인 면에서 찰피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海印寺에는 수다라전에 이르는 부분으로 관목성 수목으로 노단을 구성하여 승화공간을 조영하였다(李成圭, 1996). 특히 學士臺의 전나무는 新羅末期 崔致遠이 신라의 쇠망함을 탄식하며 가야산으로 입산하였는데 그 기념으로 심은 나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徐貞任, 1975).

裴貞寬(2001)이 전국의 7개 사찰을 중심으로 경내 수목의 栽植現況과 그 類型을 살펴보면

첫째,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는 장소이지만 月精寺는 예외적으로 적광전에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어 실제로 적광전이 대웅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웅전 앞에는 수목이 전혀 식재되지 않았다. 이는 대웅전과 수목에 대한 특별한 忌避意識에서가 아니라 경

전을 보다 분명하게 조영하기 위한 사찰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월정사에서는 적광전 앞에만 산철쭉 외 7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수목 식재 여부가 불도와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둘째 극락보전과 무량수전은 서방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님(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곳으로 극락보전은 신흥사, 신흥사 및 미타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무량수전은 월정사와 부석사에서 볼 수 있었다. 미래를 상징하는 극락보전 및 무량수전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월정사, 신흥사, 및 부석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또 월정사와 미타사에서는 금송과 백송, 그리고 기타 매자나무의 15종의 수목이 극락보전과 무량수전에 식재되어 있다.

셋째, 비로자니불은 불국사의 비로전에 모셔져 있으며 여기서는 백목련을 위시하여 25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또한 현세에서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현세기복적 성격의 보살인 관음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원통전, 대비전 및 관음전은 낙산사와 불국사에서 볼 수 있다. 식재된 수종을 보면 사철나무만 두 곳의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기타는 모두 短種들이다. 사철나무 외 총 26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넷째,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명부전은 신흥사에서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나무수국 외 5종이 식재되어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고유의 土俗神들을 종교적으로 수용한 전각, 산신각, 칠성각 및 독성각 등에서는 사찰에 따라 각각 달라 월정사에는 삼성각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송 외 3 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신흥사에는 어떠한 수목도 식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사찰에 따라 조경수목의 식재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곧 佛道와 樹木간에는 별로 특별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불교의 종교적 의미를 갖는 수종으로서 배롱나무가 있는데 이는 5개의 사찰에서 식재되어 있었고 불두화도 5개가 사찰에서 볼 수 있지만 佛敎儀式에 따른 수목선택에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지역적 특성이란가 기후 및 환경과 친화적인 식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식재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寺刹이 創建된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地形 및 環境과 깊은 聯關性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IV. 맺음 글

우리나라 造景文化는 이미 古朝鮮時代부터 發源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들어와서는 佛敎文化에 힘입어 상당한 進展을 보았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경이 주로 王室과 그 권속들의 생활주변에만 한정된 것이었음은 그만큼 조경으로 하여금 大衆化를 이루지 못한 原因이 된다. 그러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京 内外의 樓亭이나 別墅 혹은 住宅 内에 정원이 들어서면서 조경문화는 한층 꽃을 피우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조경은 外來文化의 模倣이나 전기의 作庭樣式을 踏襲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 獨自性을 갖고 이룩된 문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경이 特定階層을 중심으로 발전되다보니 大衆普及이 매우 遲滯되었고, 거기다 景觀造形物이 사치스러운 附屬品이라는 사실로 인식되어 조경은 생활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경은 더 이상 우리 생활로부터 결코 遊離되어질 수 없는 엄연한 문화의 한 領域이므로 전통적인 造形과 그 思想을 재삼 具顯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옛 것을 그대로 模倣하고자 하는 觀念으로부터 탈피하여 조경 본래의 의미가 갖는 美와 思想의 調和를 現代의 素材로 代替하는 방식의 創出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는다.

또한 사찰도 더 이상 사찰만으로 존재하는 聖域이 아니고 參禪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觀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누구나 자주 찾으며 景觀도 즐기고 사찰에서 敎導하는 佛道를 깨달은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기 힘들다. 그러므로 修道에 오히려 도움을 더해주며 觀光的 요소도 가미된 아름다운 사찰의 造影이야말로 시대가 요청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같은 역사를 걷고 있는 日本寺刹들이 日本式 造景의 眞髓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寺刹造景의 中興이야말로 韓國 造景文化를 繼承發展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契機가 되리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우선 현존하는 古代寺刹은 물론 조선시대의 별서, 정자, 주택, 왕실정원 등 독특한 정원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景觀 價値를 적극 發掘하고 이를 중심으로 韓國式 正統造景의 標準을 定着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參 考 文 獻

- 姜承門. 1984. 韓國 寺刹建築中庭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강신갑. 1984. 사원의 조경수 식재경향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姜希顏. 1974. 「養花小錄」, 乙西文化社  
권주택, 1973. 「Bodhidruma 菩提樹」. 佛書普及社, 서울, pp.17-87  
金南喆. 1993. 三寶寺刹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關한 研究, 寺刹造景 研究, Vol. 1, 33-44

- 金麟厚. 1972. 「平泉莊記」, 韓國思想大全集 第11卷, 同和出版公社, 서울, pp.192-193
- 김일림. 1955. 한국 불교사찰의 입지유형과 경관구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柳仁熙. 1984. 동양사상의 일반적 특성, 「東亞大百科事典」, 東亞出版社, 서울
- 裴貞寬. 2001. 寺刹景觀에 있어 造景植物을 중심으로 한 配置形式에 관한 研究, 培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徐貞任. 1975. 韓國 古代伽藍造景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申永徹. 1980. 韓國 寺刹의 景觀과 植物相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申宇均. 1986. 忠義祠 境域의 植栽樹種에 관한 研究. 禮山農業專門大學論文集, 第23輯. 427-434.
- 申宇均·金光東. 1993. 顯忠祠의 植栽樹種에 관한 研究. 禮山農業專門大學論文集, 第30輯. 1-16.
- 李圭秦. 1992. 「뽑내고 싶은 韓國人」, 신원문화사, 서울, pp.352-356,
- 李成圭. 1996. 우리나라 主要寺刹의 造景樹種 및 植栽特性에 關한 研究, 淸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正 覺. 1994. 「그곳 절을 찾아서, 伽藍」, 봉은사 출판부, 서울, p.38
- 鄭在鏞. 1996. 「韓國 傳統의 苑」, 圖書出版 造景, 서울, p.477
- 정재훈. 1990, 「한국의 옛 조경」 - 대원사, 서울
- 조남훈. 1996. 南部地方 寺刹의 植栽 및 景觀變遷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曹正松. 1985. 制度로서의 藝術과 環境, 韓國造景學會誌, Vol.13, No.2 : 91-98
- 최상범·하재호. 1998. 佛甲寺(全南 靈光郡)의 植物相 調查研究, 寺刹造景研究, Vol.6 : 181-200
- 河在浩, 洪光杓, 金南喆. 1997. 伸巖寺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관한 研究, 寺刹造景研究, Vol.5, 45-57
- 韓國造景學會. 1996. 「東洋造景史」. 文運堂, 서울, p.61
- 韓國造景學會. 1999. 「동양조경 총설」, 東洋造景史, pp.4-8, 文運堂, 서울
- 홍운식. 1990. 「蔓茶羅」, 대원사, 서울
- 黃溟江. 1975. 「新羅佛敎 說話研究」, 一志社. 서울, pp.94-95
- 黃沔根. 1970. 「韓國의 美」, 乙西文庫 31, 乙西文化社, 서울, pp.75-84
- 進十五十八. 1987. 「日本庭園의 特質」. 東京農業大學出版會. p.154
- 宮 脇昭. 1971. 「植物と人間」, 日本放送出版協會, 東京
- 近藤公夫·中村昌子·宮崎暎子·西洋子·山内美惠子. 1972. 史的環境の整備に關する計劃



的研究(IV). 日造園雜誌 Vol.35 : 17-24

Collingwood, G. 1958. 「The Principles of Art」, New York. Oxford U.P.

Dickie, G. 1971. An Introduction, 「Aesthetics」, Pegasus, p.84

Whyte, R.O. 1976. 「Land and Land Appraisal」. W.Junk, The Hague,

Eckbo, G. 1983. Is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Vol.73, No.3, 54-65

Meinig, D.(ed). 1979.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Oxford University Press,  
N.Y. p.3

Carpenter, P.L., T.O.Walker & F.O.Lanphear. 1975. 「Plant in the Landscape」, W. H.Freeman  
& Co., San Francisco, pp.100-205